

'재량사업비' 도의원 3명 집행유예

〈뇌물수수 등 혐의〉

최진호·강영수 전 의원, 정진세 도의원... 법원, "권한 남용해 국민 세금 낭비·뇌물액수 많아"

전주자법 형사8단독(이배근 판사)는 11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진호 전 전북도의회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벌금 1000만원과 2000만원 추징을 명했다.

또한 제3차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강영수 전 전북도의회에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정진세 전북도의회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최진호 전 의원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브로커를 통해 2차례에 걸쳐 1500만원의 정치자금을

받고 재량사업비 예산을 의료용 운영기 설치사업에 편성해 준 대가로 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 전 의원은 선고 공판을 앞둔 지난 4일 의원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강영수 전 의원은 지난 2015년 2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재량사업비로 추진된 전주시내 학교 6곳의 체육관 기능보강 사업 예산 등을 편성해 해당 사업을 수주해주고 브로커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26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로 인해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200만원과 추징

금 260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후 검찰의 추가 수사를 통해 정 의원 뒤의 재량사업비 예산을 해당 사업 브로커에게 편성해 주고 1500만원을 받아 이 중 1000만원을 정 의원에 건넨 혐의가 확인돼 다시 기소됐다.

정진세 의원은 2015년 8월과 2016년 6월 재량사업비 예산을 편성해주는 대가로 브로커에게 강 전 의원을 통해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위치에 있으면서 도의원 권한을 남용해 국민 세금을 낭비했다"

며 '뇌물 액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번 선고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인 노석만 전 도의원을 포함한 전현직 전북도의원 4명이 '재량사업비 리베이트'와 관련해 4명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또한 이날 재판부는 지난2012년부터 2014년까지 도의원들에 대한 재량사업비 예산 편성 청탁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매체 전북본부장 A씨에게 징역 2년4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8190만원과 16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 /이상민 기자

대학생들, 인도네시아 봉사활동 간다

전주시자원봉사센터 주관·월드프렌즈코리아 후원으로

(사)전주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황의욱)는 전국 대학생들과 인도네시아로 봉사활동을 떠난다.

전주시봉사센터(센터)는 교육부와 월드프렌즈코리아의 후원을 받아 전국 대학생 22명과 단장 인솔자 등 총 25명의 해외봉사단원들이 오는 13일부터 2주간 인도네시아 남부지역에서 봉사활동을 전개한다고 11일 밝혔다.

한국대학교사회봉사협의회가 주최하고 전주시자원봉사센터가 주관하는 이번 해외봉사활동에서 봉사단은 족자카르타 과묵2번학교에서 교육봉사과 노력봉사를 펼친다.

이들은 현지 학교에서 미술과 학·보건위생·체육 등 3개 과목 수업을 진행하고 학교 외벽 벽화 작업과 노후시설 보수 환경정비 등 봉사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또한 해외봉사활동 마지막시간에는 K-pop과 태권무, 부채춤 등 양국의 문화교류 행사를 통해 한국문화를 알리고 전주시민의 자원봉사 문화를 직·간접적으로 전달

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해외봉사활동을 위해 전북대학교 생활과학교실에서 교육물품을 제공하고 한일고등학교 학생들은 직접 만든 그림책과 북주머니를, 행복한가게(회장 김남규)는 현지 아이들이 입을 옷을 각각 후원하는 등 지역사회도 나눔의 손길에 동참했다.

센터는 해외봉사활동을 떠나기 전에 12일과 13일 이틀간 2차 심화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센터는 지난해 9월 월드프렌즈 청년봉사단 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후 해외봉사단 발대식과 사전미팅 등을 진행해왔다.

황의욱 이사장은 "올해도 전주시 자원봉사센터가 선정돼 해외봉사활동을 하게 된 것에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활동을 통해 단원들이 자원봉사의 참의미를 깨닫고 한국의 자원봉사 문화를 해외에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채규남 기자



시민, 경찰이 하나로 겨울 들어 최고의 폭설과 한파가 몰아친 가운데 지난 10일 오후 4시부터 11일 오전 9시까지 전주시와 경찰, 모범운전자, 교통봉사대, 시민들이 눈길 안전사고 예방과 출퇴근길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힘을 하나로 모았다. 시정직원들과 모범운전자·온누리교통봉사대·가로수교통봉사대·해병전우회 등 4개 단체 자원봉사자 110여명도 11일 오전 6시부터 3시간동안 36개 주요교차로에서 교통약자 등 시민들을 위해 제설모래를 살포했다. 이뿐만 아니라 시 외곽 농촌마을에 거주하는 도시농부들로 구성된 설해대책 민간제설단도 이날 이른 아침부



터 트랙터를 이용해 마을진입로 등 취약지역에 대한 주민동행 불편을 줄이기 위한 제설작업을 실시했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9일부터 시민들의 눈길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보행 및 교통보행 불편을 줄이기 위한 제설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동시에 제설장비 26대와 열화칼슘 등 제설자재를 활용해 급산사선 등 주요 외곽도로와 상습 결빙 구간을 중심으로 전 노선에 대한 제설작업을 했다. 시는 향후에도 시민들이 폭설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시민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힘을 모아 더욱 철저한 제설대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채규남 기자

전주시 '눈길 안전사고 예방' 힘 모아

전주시·경찰·자원봉사자, 교차로 꼬리물기 차단·제설모래 살포

올 겨울 최고의 폭설과 한파가 몰아친 가운데 전주시와 경찰, 시민들이 눈길 안전사고 예방과 출·퇴근길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힘을 하나로 모았다.

김승수 전주시장을 비롯한 전주시 전 직원과 완산경찰서(서장 이훈), 덕진경찰서(서장 이후신)의 경찰 130여명, 시민 자원봉사자 110여명은 지난 10일 오후 4시부터 11일 오전 9시까지 경기장 네거리와 명주골 네거리, 꽃밭장이 사거리 등 차량 이동이 많

은 주요교차로 36곳에서 출근시간 시민 불편해소와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 통제에 나서는 등 집중 설해대책을 추진했다. 전주지역은 오전 4시를 기해 대설주의보가 해제됐지만 11.4cm(11일 오전 6시 기준)의 누적 적설량을 기록한데다 기온이 영하10°C까지 내려가면서 도로가 얼어붙었다.

특히 경찰은 시민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출·퇴근 차량으로 혼잡한 주요교차로에서 운전자의 꼬리 물기를 차단하는 등 원

활한 차량흐름을 위한 교통통제를 실시했다.

또한 시정 직원들과 모범운전자·온누리교통봉사대·가로수교통봉사대·해병전우회 등 4개 단체 자원봉사자 110여명도 11일 오전 6시부터 3시간동안 36개 주요교차로에서 교통약자 등 시민들을 위해 제설모래를 살포했다.

이뿐만 아니라 시 외곽 농촌마을에 거주하는 도시농부들로 구성된 설해대책 민간제설단도 이날 이른 아침부

터 트랙터를 이용해 마을진입로 등 취약지역에 대한 주민동행 불편을 줄이기 위한 제설작업을 실시했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9일부터 시민들의 눈길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보행 및 교통보행 불편을 줄이기 위한 제설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동시에 제설장비 26대와 열화칼슘 등 제설자재를 활용해 급산사선 등 주요 외곽도로와 상습 결빙 구간을 중심으로 전 노선에 대한 제설작업을 했다. 시는 향후에도 시민들이 폭설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시민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힘을 모아 더욱 철저한 제설대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채규남 기자

전주시, 체납세 특별징수기간 9억원 초과 징수

전주시는 고액체납자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특별징수기간을 실시한 효과를 봤다.

시는 지난 11월 24일부터 12월 말까지 운영한 특별징수기간 동안 지방세 98억원과 세외수입 66억원 등 총 159억원을 징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를 위해 8만3,649명의 체납자에게 55만3,147건의 납부 최고서를 발송해 자진납부를 유도했고 특별징수 추진단을 구성, 직원별 책임징수 목표관리제를 운영했다.

추진단은 고질체납자 537명, 5,303건(128억원)에 대해서는 체납자별 심층 분석을 실시한 후 명단공개, 공공기록보존등록, 부동산 및 채권압류, 공

매 등 체납처분했다.

특히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을 통해 10억원(90건)을 징수했고 체납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을 통해 2억4000만원(322대)의 체납액을 징수하기도 했다. 그 결과 추진단은 징수목표액인 150억원 보다 9억원을 초과 징수했다.

김상용 세정과장은 "앞으로도 비양심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 징수할 것"이라며 "납세의무를 다하지 않고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사회적 공감대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납세의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징수 및 홍보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채규남 기자

위도서 제설작업하던 굴착기 추락... 운전자 부상

제설작업을 하던 굴착기가 언덕에서 미끄러지며 추락해 굴착기 운전자 1명이 부상을 당했다.

11일 낮 12시18분께 전북 부안군 위도면의 한 마을 진입로에서 제설작업을 하던 굴착기가 미끄러지면서 5m 언덕 아래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운전자 A(61)씨가 굴착기

에 몸이 끼여 팔과 다리 등에 부상을 입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는 헬기를 동원해 A씨를 병원으로 이송했다.

경찰은 목격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상민기자

우리동네 무인주차장 어디에 있을까?

주차하고 구경하고 무인주차장에 주차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편리합니다.



[전주시 무인주차장 안내]

- 서부신시가지 도청영**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75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노송천 주차장**
전주시 노송여울2길 108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농협중앙회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5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덕진광장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덕진광장로 3 (239-2562)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다은병원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2길 5-12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실내체육관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권삼덕로 308 (251-1264)
(연중무휴) 4,000원 기본(30분):500원, 추가(15분):250원
- 서부신시가지 KB은행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1길 4-1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